

衝脈에 對한 文獻的 考察

金成一 · 宋春浩*

ABSTRACT

The Literary study on Chōngmài

Seong-II, Kim · Choon-Ho, Song*

*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al College, Dongeui University

We came to the conclusion after considering all the information from many kinds of books on the circulation courses, cross-link points, functions and the symptoms of disease of Chōngmà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hōngmài that starts from a Uterus flows to Dàzhù through the inside of vertebra after joining Rènmai and Dūmai at Huìyīn. The Chōngmài's up-line that comes out from Qìchōng into a surface of body arrives and is scattered at a chest through an abdomen. One strand of them goes upward again and is connected to a throat and lips area. After coming out from Qìchōng, separated down-line is divided into two parts when it arrives a inner part of a heel through the inner part of a leg. One is for an instep, the other is for the sole of a foot.

2. We call it "Sea of Twelve Meridians" or "Meridian's Sea". Because Chōngmài controls all of Meridian by acquired "Basic energy" as getting Stomach's energy, Kidney's energy and air-energy, and there are responsible of physiological phenomenon control. And also we name it "Sea of Blood", because it starts from and provides a nutrition to Uterus.

3. All of these four Meridian such as Rènmai, Kidney Meridian, Stomach Meridian and Spleen Meridian are ones that flow around the part of a chest and an abdomen. Chōngmài makes energy and blood circulation of a chest and an abdomen be stronger and be controlled. Therefore it makes viscera, bowels and body surface be warm and given a nutrition. So Chōngmài becomes "Sea of Viscera and Bowels".

Key Words : Chōngmài, Sea of Twelve Meridians, Meridian's Sea, Sea of Blood, Sea of Viscera and Bowels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4. Chōngmài provides a nutrition for ligament and muscle and makes legs get warm as making energy and blood circulate from head to foot. If Chōngmài is energetic, hair is completely easy to grow.

5. To see in pathological phase, Chōngmài's failure or weakness causes like a chest pain, stomachache, heart attack, a menstrual irregularity and sterility and so on. And also if Chōngmài is damaged, it happens that giving a nutrition for lips area is stopped, and then mustache doesn't grow any more.

I. 精 論

人體는 經絡이라는 하나의 統一된 시스템을 構成하여 모든 外部 器官과 內部 臟器를 密接하게 連結시키고 있으며, 人體의 氣血을 운반하고 表裏 上下를 疏通시키며 臟腑와 組織 및 器官을 緊密하게 連結시키고 있다. 이 經絡系統은 經脈과 絡脈으로 構成되어 內部로는 臟腑에 접속되고 外로는 軀體에 분포하는데, 이 중 經脈은 크게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十二經脈은 氣血이 循行하는 主要 通路이며 일정한 規律에 따라 體表에 分布하고 走行하며 內部 臟腑와 직접 絡屬된다. 이에 비하여 奇經八脈은 五臟六腑와 직접적인 連續은 없으나 奇恒之府와 連續되어 있는데, 十二經脈의 不足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여 正經間의 연결을 밀접하게 하고, 十二經脈의 氣血盈虛에 協調하여 機體調節의 平衡을 維持하며, 또 十二經脈을 分類하고 組合시키며 主導하는 作用을 한다.^{1,2)}

奇經八脈에 관한 研究는 內經에서 최초로 언급되어 많은 條文에 걸쳐 記述되어졌고, 難經에 이르러 奇經八脈의 名稱, 流注, 病症이 體系化되기 시작하였으며, 秦代에 이르러 皇甫謐의 『鍼灸甲乙經』에 奇經八脈의 所屬穴과 交會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이후 金元時代에 이르기까지 黃帝內經太素, 十四經發揮 등을 통해 奇經八脈에 대한 이론이 발전되었으며 明, 清代에 이르러서는 醫學入門, 鍼灸大成, 奇經八脈考 등을 통해 體系的으로 定立되었다.³⁾

奇經八脈 중 衝脈은 다른 奇經에 비하여 그 作用이 多樣할 뿐 아니라 流注 部位가 廣範圍하고 비교적 複雜하다. 衝脈은 胸中에서 起始하였으며 “血海”라 칭하며 동시에 十二經脈, 五臟六腑에 비교적 큰 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十二經之海”, “五臟六腑之海”라고도 부른다. 衝脈이 이러한 重要作用을 가지게 되는 까닭은 足少陰經과 足陽明經에 聯系되어 있음과 동시에 任督脈과 함께 胸中에서 起始하여 「源岐」하는 聯關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러한 衝脈에 대해 循行, 生理, 病候 그리고 交會하는 他 經絡과의 關係를 각 시대별 文獻을 整理, 比較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研究方法

(1) 衝脈의 循行部位와 生理, 病候에 대하여 歷代文獻을 통해 考察하였다.

(2) 衝脈과 交會하는 他 經絡과의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2. 衝脈의 循行

- 衝脈起於關元 隨腹直上. 『素問·學痛論』⁴⁾
- 衝脈氣所發者二十二穴; 俠鳩尾外各半寸至臍寸一 俠臍下傍各五分至橫骨寸一 腹脈法也. 『素問·氣府論』⁴⁾

- 衝脈者 起於氣街 併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素問·骨空論』⁴⁾
- 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其上者 出於頰頰 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 屬而別其下者 併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伏行出跗屬下 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靈樞·逆順肥瘦』⁵⁾
-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起於腎下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併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以溫足脛. 『靈樞·動脈』⁵⁾
-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面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脣口. 『靈樞·五音五味』⁵⁾
- 衝脈者 起於氣街 併足陽明之經 夾齊上行 至胸中而散也. 『難經·二十八難』⁶⁾
- 衝脈起於關元 循腹裏直上至咽喉中. 『脈經』⁷⁾
- 人有四海 ……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脈上在大杼 下出巨虛上下廉. 『鍼灸甲乙經』⁸⁾
- 衝脈者 起於氣街 併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此爲病令人逆氣裏急. … <鍼經>所載衝脈與督脈同起於會陰 其在腹也. … 『聖濟總錄』⁹⁾
- 衝脈者 與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脊裏 爲經絡之海. 其浮面外者 循腹上行 會於咽喉 別而絡脣口. 『十四經發揮』¹⁰⁾
- 衝爲經脈之海 又曰血海 其脈與任脈 皆起於少腹之內胞中 其浮而外者 起於氣街 併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至橫骨 俠臍左右各五分 上行歷大赫 氣穴 四滿 中注 育俞 商曲 石關 陰都 通谷 幽門 至胸中而散 凡二十四穴. 『奇經八脈考』¹¹⁾
- 起于少腹內胞中 沿脊柱上行 出於氣街 竝于少陰 從橫骨 沿腎經 俠臍上行 過咽喉 繞絡口唇. 『鍼灸集錦』¹²⁾
- 又衝脈起於氣衝 併足少陰之經 俠臍上行 會於咽喉 至胸而散. 『鍼灸節要』¹⁰⁾
- 衝脈出布脊脊中 從腹會咽絡口唇 女人成經爲血室 脈并少陰之腎經 與任督本于陰會 三脈并起而

- 異行. 『鍼灸大成』¹³⁾
- 衝脈者 起於會陰 併足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鍼方六集』¹⁰⁾
- 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與任脈皆起於胞中 又與督脈同起於會陰. 『羅遺編』¹⁴⁾
- 其脈起於氣衝 併陽明經俠臍上行 至胃中而散 卽臍之動氣脈也. 『瘍醫大全』¹¹⁾
- 公孫二穴 是足太陰脾經穴也 通于衝脈. 『醫宗金鑑』¹⁵⁾

3. 衝脈의 生理

- 女子 …… 二七 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 少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素問·上古天真論』⁴⁾
-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溪谷 如陽明合於宗筋. 『素問·痿論』⁴⁾
-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其上者 … 滲諸陽 灌諸精 … 其下者 … 滲三陰; 其前者 … 滲諸絡而溫肌肉. 『靈樞·逆順肥瘦』⁵⁾
-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 入大趾之間 注諸絡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靈樞·動脈』⁵⁾
-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 爲經絡之海 … 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漑皮膚 生毫毛. 『靈樞·五音五味』⁵⁾
- 人有四海 十二經水者 皆注於海. 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 『鍼灸甲乙經』⁸⁾
- 衝爲經脈之海 又曰血海. 『奇經八脈考』¹¹⁾
- 血室者 血之所居也 榮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處 衝脈是矣. 夫衝者 奇經之一也 …… 爲諸經之海也. 衝爲血海 諸經朝會 男子則連而行之 女子則停而止之 是皆謂之血室. 『醫學綱目』¹⁶⁾
- 衝任二脈起於胞中者 行其化也. 是故五臟六腑之經皆受氣於六脈 因以海名之. 所以二脈貴乎流通而惡閉塞. 『證治準繩』¹¹⁾
- 衝脈 …… 注諸絡以溫足脛 故爲十二經之海. 然其所出入 皆併少陰之經以行也 故爲血海. 『醫經理解』¹¹⁾

- 衝者 通也 言上至頭 下至足 通十二經之氣血. 『瘍醫大全』¹¹⁾
- 公孫脾絡 足太陰脾總領三陰之脈 衝脈是奇經八脈中主要陰經脈之一. 脾主後天營衛之氣 衝脈與足少陰足陽明相聯系 與任督脈為一源三岐. 腎為先天之根本 任督總領陰陽 故衝脈為十二經之海. 先後天之氣相連衝脈 與脾相通. 『鍼灸心悟』¹⁷⁾
- 衝脈起於腹氣街 後天宗氣氣衝來. 併於先天真氣相竝依膻上胸街 大氣至胸中而散 會合督任 充身懷. 分佈臟腑諸經絡 名之曰海 不為乖. 『身經通考』¹¹⁾
- 衝起胃之氣衝 後天宗氣之海 併少陰腎而行 合先天真氣也. 至胸中而散 籍氣海之元氣以分佈也. 『周氏經絡大全』¹¹⁾

4. 衝脈의 病候

- 衝脈為病 逆氣裏急. 『素問·骨空論』⁴⁾
- 寒氣客于衝脈 衝脈起於關元 寒氣客則脈不通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素問·舉痛論』⁴⁾
-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靈樞·海論』⁵⁾
- 夫衝脈者……其下者…循附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附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靈樞·逆順肥瘦』⁵⁾
- 宦者去其宗筋 血瀉不復 皮膚內結 唇口不榮 故鬚不生. 『靈樞·五音五味論』⁵⁾
- 胸中有寒疝也.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瘕疝絕孕 遺矢溺 脅支滿煩也. 『脈經』⁷⁾
- 衝脈為病 逆氣裏急. …… 宦者去其宗筋 傷其衝脈 血瀉不復 皮膚內結 唇口不營 故無鬚鬣. 天宦者 其任衝之脈不盛 宗筋不成 有氣無血 口唇不營 故鬚鬣不生. 『鍼灸甲乙經』⁸⁾
- 虛勞之人 腎氣不足 傷於衝脈. 其證腹裏拘急 膻上至心下引痛 不能食 身寒而怵栗也. 『聖濟總錄』⁹⁾
- 血氣盛則肌肉熱 血獨盛則滲灌皮膚生毫毛. 婦人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月事數下 任衝竝傷故也. 任衝之交脈 不營其口唇 故鬚髮不生. 此為病也 令人逆氣裏急. 『十四經發揮』¹⁰⁾

衝脈為病 氣逆而裏急 秋冬之月 胃脈四道為衝脈所逆 脇下少陽脈 二道而反上行 名曰厥逆. 其證氣上衝咽不得息 而喘息有音不得臥 凡逆氣上衝或兼裏急 或作躁熱 皆衝脈逆也. 衝督用事則十二經不復朝於寸口 其人皆苦恍惚狂癡 尺寸俱直上直下 此內衝脈 胸中有寒疝也 脈來中央堅實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瘕疝遺溺 脇之滿煩 女子絕孕. 『奇經八脈考』³⁾

- 衝病則氣逆而裏急……其衝任二經 是又婦人乳血月候之所從出. 『醫學入門』¹⁸⁾
- 夫病熱中症者 衝脈之火附二陰之裏 傳之督脈. 『醫學綱目』¹⁶⁾
- 公孫位于大趾本節後一寸 與衝脈入足下的一支接近. 其絡入腸胃 又與腹部衝脈接近 其主病重點在腹部. 『奇經八脈考校注』¹⁹⁾

Ⅲ. 總括 및 考察

衝脈의 “衝”은 “冲”의 意味도 있는데 辭典의 으로는 “四通五達之郊”, “要衝, 要道” 혹은 “비어있다, 깊다”라는 意味를 갖는다. 즉 ‘四通五達하는 곳의 要道로 많은 것을 涵蓄할 수 있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衝脈은 위로는 머리에서 아래로는 발끝까지 全身을 貫串하고 있으며 諸經의 氣血을 總領하는 要衝 經脈이다. 능히 十二經의 氣血을 調節하므로 “十二經之海”, “五臟六腑之海” 혹은 “血海”라고 칭한다.²⁰⁾ 이러한 衝脈을 循行部位와 交會經을 中心으로 그 生理와 病候를 살펴보았다.

<鍼灸學>²¹⁾에서 衝脈은 少腹內 胞中에서 起하여 氣衝에서 出한 후 足少陰經과 并行하여 膻傍을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른 후 흩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十二經之海”, “經脈之海”, “血海”, “五臟六腑之海” 등으로 稱해지고 作用은 生殖과 內分泌 方面과 가장 밀접하며 주로 月經不調나 “逆氣, 裏急”의 病候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衝脈의 循行部位에 대해 文獻에 나타난 內容을 보면 크게 네가지 說이 있다. 첫번째 說은 『素問·學痛論』⁴⁾에 기재된 內容으로 關元에서 起하여 腹部를 따라 直上하여 咽喉中에 이른다고 하였다.

두번째 說은 『素問·骨空論』⁴⁾에 기재된 內容으로 氣街에서 起하여 少陰之經 (『難經』⁶⁾에서는 足陽明之經이라 하였다.)을 따라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흩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聖濟總錄』⁹⁾, 『十四經發揮』¹⁰⁾ 등에서는 <難經>에서 말한 “衝脈者 起於氣街 併足陽明之經 ……”에 대하여 足陽明은 臍左右 各二寸處에서 上行하고 足少陰은 臍左右 各五分處에서 上行하는데 衝脈이 會하는 橫骨, 大赫, 氣穴, 四滿, 中注, 育俞, 商曲, 石關, 陰都, 通谷, 幽門 등의 穴이 足少陰經의 穴이므로 內經에서 말한 “併少陰之經”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明代에 쓰여진 『奇經八脈考』¹¹⁾에서는 “其浮而外者 起於氣街 併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至橫骨 俠臍左右各五分 上行…”이라 하여 足陽明少陰二經之間이 流注 徑路라고 하였다. 그러나 『鍼灸大成』¹³⁾, 『鍼灸節要』¹⁰⁾ 등 대부분의 醫書에서는 모두 少陰經과 併行하는 것으로 記載되어 있다.

세번째 說은 『靈樞·逆順肥瘦』⁵⁾와 『靈樞·動脈』에 기재된 內容으로 腎下에서 起하여 위로는 頰頰으로 出하여 滲諸陽하고, 아래로는 少陰之大絡을 따라 氣街에서 出하여 陰股內廉을 지나 臑中을 거쳐 肝骨內(脛骨內廉)를 따라 內踝之後에 이른 후 한가닥은 少陰經을 따라 내려가면서 小絡으로 三陰之中으로 滲入하고, 다른 한가닥은 跗屬에 이르러 循跗하고 下入大指間하여 滲諸絡한다.

네번째 說은 『靈樞·五音五味』⁵⁾에 나오는데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起하여 한가닥은 背裏 (『鍼灸甲乙經』⁸⁾, 『太素』²³⁾ 등에서는 脊裏로 되어있다)로 循行하고 다른 가닥은 腹部를 따라 上行하여 咽喉에서 會하고 口唇에 絡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海論』⁵⁾에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其脈上在大杼 下出巨虛上下廉”, 「歲露」⁵⁾에는 “入脊內伏衝之脈”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해 『類經』²²⁾에서는 “伏衝之脈 卽衝脈之在脊者 以其最深也”라 했다. 이를 보면 衝脈의 後行하는 分枝는 脊裏를 따라 大杼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衝脈의 循行에 대한 네가지 說과 기타 文獻上에 記載된 內容을 定理하면 <표1>과 같다.

<표1> 文獻上에 記載된 衝脈 循行

素問「學痛論」	起於關元 循腹裏直上 至咽喉中
素問「骨空論」	起於氣街 併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難經「二十八難」	起於氣街 併足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
奇經八脈考	起於胞中(浮而外者) 起於氣街 併足陽明少陰二經之間 循腹上行 橫骨 大赫 氣穴 四滿 中注 育俞 商曲 石關 陰都 通谷 幽門 至胸中而散
靈樞「動脈」 「逆順肥瘦」	起於腎下 [上者出於頰頰—滲諸陽 下者注少陰之大絡—一出於氣街—循陰股內廉 一入臑中—伏行肝骨內—一下至內踝之後— 併於少陰之經 — 滲三陰 伏行出跗屬下 循跗 入大指間 — 滲諸絡
靈樞「五音五味」 十四經發揮	起於胞中 上循背裏(脊裏) 浮面外者 循腹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靈樞「海論」	其脈上在大杼 下出巨虛上下廉
鍼方六集	起於會陰 併足少陰之經 俠臍上行 至胸中而散

衝脈의 起始部에 대해서는 『素問·舉痛論』⁴⁾에서는 關元穴이라 하였고 『素問·骨空論』⁴⁾, 『難經』⁶⁾, 『鍼灸甲乙經』⁸⁾에서는 氣衝穴이라 하였으며 『靈樞·動脈』⁵⁾에서는 腎下라고, 『靈樞·五音五味』⁵⁾, 『鍼灸集錦』¹²⁾, 『羅遺編』¹⁴⁾, 『十四經發揮』¹⁰⁾, 『奇經八脈考』¹¹⁾에서는 胞中이라 하였다. 그리고 『鍼方六集』¹⁰⁾에서는 會陰이라 하였고, 『鍼灸大成』에도 “<鍼經>에 衝脈與督脈同起於會陰이라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素問·舉痛論』에 대하여 類經²²⁾이나 太素²³⁾ 등 註釋書에서는 “關元은 臍下 少腹에 위치하여 胞에 해당하니 마땅히 衝脈은 胞中에서 起한다”라고 하였으며, 『素問·骨空論』에 대해서는 『類經』²²⁾에서 “여기서의 起한다 함은 外脈之所起이지 發源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衝脈의 發源하는 곳은 腎下의 胞中이며 會陰에서 任督脈과 交會하고 氣衝으로 出한다고 볼 수 있다. “胞中”은 人體의 丹田을 말하며 女子에 있어서는 女子胞이고 男子에 있어서는 精室에 해당한다(王冰註).¹¹⁾

現代 文獻을 보면 <最新鍼灸學>²⁴⁾에서는 衝脈의 分布路線을 다섯갈래로 종합하였는데 첫째는 下腹의 內部에서 鼠蹊部(氣衝)로 淺出하여 足少陰腎經과 나란히 上行해서 臍傍을 지나 胸中에 達한 후에 四方으로 散布되며, 둘째는 胸中에서 散布된 分枝중 하나가 다시 上行하여 鼻의 內竅인 頰頰部(上頰部)에 散布된다. 셋째로 下腹에서 腎下로 輸注되는 脈氣는 氣衝 部位로 淺出하여 大腿內側을 沿해서 膝窩中에 進入되고, 脛骨의 內緣을 지나 內踝의 後面에 이르고 足底에 到達하며 넷째는 脛骨의 內緣에서 外緣을 향하여 足踝로 再入하고 足背에 이르러 足大趾에 分布된다. 마지막 갈래는 下腹의 胞中에서 分出하여 안으로 脊中을 貫通해서 背部를 循行한다.

衝脈의 循行을 綜合하여 圖式化 하면 <표2>와 같다.

循行路線을 考察해 보면 衝脈은 足少陰腎經과 足陽明胃經 이외에도 足太陰脾經, 任脈, 督脈 등과 직접 交會함을 알 수 있으며(표3 참조), 이는

衝脈의 生理的 作用에 있어 重要的 의미를 갖는다.

<표2> 衝脈의 循行

胞中	(後行) 會陰 - 脊裏 - 大杼
	(前行) 氣衝 (上行) 併少陰經 - 循腹 - 至胸中而散 - 會喉 絡口唇 - 出頰頰
	(下行) 陰股內廉 - 臍中 - 脛骨內廉 - 內踝之後 [足底 跗屬 - 大趾間

<표3> 衝脈과 交會經脈

交會穴	交會經	備考
幽門	足少陰腎經	先天之本, 原氣之根, 先天眞氣
腹通谷	足少陰腎經	
陰都	足少陰腎經	
石關	足少陰腎經	
商曲	足少陰腎經	
育俞	足少陰腎經	
中注	足少陰腎經	
四滿	足少陰腎經	
氣穴	足少陰腎經	
大赫	足少陰腎經	
橫骨	足少陰腎經	後天之本, 水穀之海, 後天水穀之氣
氣衝	足陽明胃經	
(陰交)	任脈	陰脈之海
(會陰)	任脈	陽脈之海, 諸陽之會
	督脈	
(公孫)	足太陰脾經	後天營衛之氣

* () 안의 穴은 他經에 있는 交會穴임

衝脈의 生理에 대해 文獻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十二經之海”, “經脈之海”, “五臟六腑之海”, “血海”, “天癸至” 등의 내용으로 要約되며 이 외에 滲灌溪谷, 灌諸精, 溫肌肉, 生毫毛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身經通考』¹¹⁾의 衝脈循行歌를 보면 衝脈이 胃經의 氣衝에서 起하니 後天宗氣(水穀之氣)를 받으며 併少陰經하니 先天眞氣를 받아 서로 어울리며 俠臍上行하여 胸中에서 大氣와 交流한다. 이로써 會

合督任하니 능히 充身懷하고 氣血을 臟腑, 諸經絡에 分佈시키므로 이름하여 “海”라 하였다. 『傷醫大全』¹¹⁾에서는 衝脈이 “上至頭 下至足 通十二經之氣血” 한다고 하였으니 故로 內經에서 十二經之海, 經脈之海, 五臟六腑之海 등으로 稱한 것이다. 또 衝脈은 公孫穴로 脾經과 직접 會하는데 『奇經八脈校注』¹⁹⁾에서는 “이로써 腸胃에 絡하고 腹部를 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衝脈이 胸腹部를 지나는 任脈, 腎經, 胃經, 脾經을 組合, 主導하여 內로는 溫臟腑하고 外로는 漂膜理하니 五臟六腑之海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衝脈은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起함과 동시에 胞를 營養하므로 “血室”, “血海”라고도 稱한다. 그래서 婦女 月經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素問·上古天真論』⁴⁾에서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이라 하였고 『鍼灸大成』¹³⁾에서는 “衝脈出胞 … 女人成經爲血室”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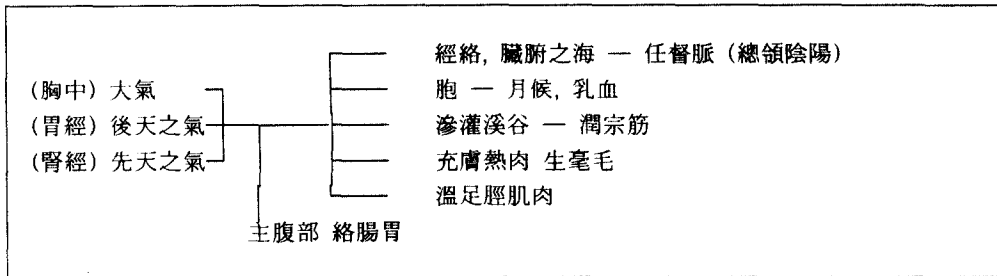
『素問·痿論』⁴⁾을 보면 衝脈은 經脈之海를 이루면서 氣血을 溪谷(溪:肉之小會, 谷:肉之大會)으로 滲灌시키고 陽明과 함께 宗筋을 營養한다고 하였다. 특히 宗筋은 “諸筋之會”이면서 陽明經의 水穀之血氣가 流出되는 氣衝과 合하는 곳이므로 能히 束骨, 利機關 할 수 있다.²²⁾

『靈樞·五音五味』⁵⁾를 보면 衝脈任脈의 浮外者는 循腹上行하여 口唇에 이르는데 血氣가 盛하면 肌肉熱하고 血이 獨盛하면 皮膚로 넘쳐 毫毛를 生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動脈』⁵⁾에서도 “注諸絡 以溫足脛”이라 하여 衝脈이 肌肉을 溫潤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男子의 경우 衝任이 旺盛하면 수염이 잘 자라고 특히 胸腹部나 다리에 毫毛가 旺盛하지만 女子는 衝任의 血氣로 胞를 營養하고 月事를 行하니 毫毛가 적다.⁸⁾

衝脈의 主要 生理的 機能은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經脈, 臟腑의 氣血을 涵蓄할 수 있다는 것이다. 衝脈은 胃(氣衝)와 腎(橫骨~幽門) 兩 經脈의 氣를 받음으로써 人身에 있어 先天과 後天의 眞氣를 涵蓄하여 十二經脈之海를 이루고 人身의 精血을 涵蓄하고 陰陽眞氣를 化하여 體內 組織에 灌漑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內溫臟腑하고 外漂膜理하는 작용을 한다. 둘째로 任脈과 더불어 養生의 根本을 主한다. 任脈과 더불어 胞中에서 起함으로 말미암아 血海를 이루니 衝任脈이 氣虛不攝하면 漏胎現象이 발생하는데 이는 衝脈이 任脈과 더불어 月經 및 胎産에 대하여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¹⁾

이상과 같은 衝脈의 生理的 作用을 圖式化하면 <표4>와 같다.

<표4> 衝脈의 生理



衝脈의 病候에 대해 文獻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逆氣裏急, 胸腹痛, 少腹痛, 瘕疝, 胸中寒疝, 上搶心, 氣上衝心, 脇支滿煩, 躁熱, 喘動應手, 氣上衝咽不得息, 臍上至心下引痛, 不能食, 身寒而快栗, 絕孕, 月事數下, 身小, 痿, 遺溺, 口唇不榮, 無鬚鬢,

厥則寒 등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衝脈의 病證에 관하여 모든 文獻에서 逆氣裏急이라 하였다. 衝脈은 氣衝에서 出하여 腎經과 俠하여 循腹上行하고 至胸中而散하므로 脈氣가 逆順하거나 不通하면 逆氣裏急하니 胸腹痛, 瘕疝,

胸中寒疝, 氣上衝心, 脇支滿煩, 喘動應手, 氣上衝咽不得息 등이 나타난다.^{4,7,11)}

衝脈은 任, 督脈과 流通이 다르지만 같이 胞中에서 起하므로 衝脈과 女子의 月經疾患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脈氣가 失調하면 月經不調나 絶孕(不妊)이 되며 또 衝脈과 任脈의 脈氣가 虛虧하여 統攝力을 잃게 되면, 孕婦에게 漏胎(流産)現狀이 일어난다.²⁴⁾ 『靈樞·海論』⁵⁾에서는 血海不足하면 身小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衝脈은 陽明經과 함께 宗筋을 營養하므로 “痿證”과도 관계가 있으며²²⁾, 經路가 口唇에 絡하므로 衝脈이 傷하면 口唇을 營養하지 못하고 髭鬚이 자라지 못한다.¹⁰⁾ 一例로 『鍼灸甲乙經』⁸⁾에서 “宦者는 宗筋을 去하여 衝脈을 傷하게 했으니 血瀉不復하고 皮膚內結하여 唇口不營 故無髭鬚”라 하였다. 또 下肢로 脈氣가 충분히 내려와 주지 못하면 別絡이 結하여 厥寒하게 된다.⁵⁾

衝脈은 그 機能과 病候에 있어서 任脈, 督脈과 같이 起始하여 “一源三岐” 하는 聯關性을 갖고 있으며, 病機도 衝任虛損, 衝任不通 등 항상 任脈과 聯關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綜合的 研究가 필요하다. 그리고 流注經路에 있어 腹部에서 上行할 때 “併少陰經”과 “併足陽明少陰二經之間”의 두가지 說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結 論

衝脈에 對하여 歷代文獻을 통해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衝脈은 胞中에서 起하여 後行하는 分枝는 會陰에서 任, 督脈과 交會한 후 脊裏를 循行하여 大杼에 이른다. 前行하는 分枝는 氣衝에서 出하여 上行 分枝는 少陰經과 함께 循腹하여 胸中에 이르러 홀어진 후 한가닥이 다시 上行하여 會咽喉, 絡口唇하고 頰頰으로 出한다. 下行 分枝는 足脛內廉를 따라 內踝之後에 이른 후 한가닥은 足底로 滲三陰하고, 다른 한가닥은 循附하여 滲諸絡한다.

2. 衝脈은 胃의 水穀之氣와 腎의 先天眞氣 그리고 胸中에서 大氣를 받음으로써 先天과 後天의 眞氣를 涵蓄하고, 任督脈과 會하여 이로써 陰陽諸經을 總領하도록하니 十二經之海, 經脈之海라 稱하며, 任脈과 함께 胞中에서 起함과 동시에 胞를 營養하므로 血海라고 稱한다.

3. 衝脈이 직접 交會하는 任脈, 腎經, 胃經, 脾經의 四經脈은 모두 胸腹部를 직접 循行하는 經脈임을 보아 衝脈은 胸腹의 氣血循環을 強化하고 調節하여 內溫臟腑, 外漂腠理를 爲主로 하니 五臟六腑之海가 된다.

4. 衝脈은 위로는 頭에서 아래로는 足에 이르기까지 氣血을 通하여 滲灌溪谷, 潤宗筋하고 溫肌肉·足脛하는데 衝脈의 氣運이 盛하면 充膚熱肉하며 能히 毫毛를 生한다.

5. 衝脈의 脈氣가 逆順하면 逆氣裏急하니 胸腹痛, 氣上衝心, 脇支滿煩, 喘動應手 등이 나타나며, 任脈과 함께 衝任虛損하면 月經不調, 絶孕, 漏胎 등이 나타난다. 經路가 口唇에 絡하므로 衝脈이 傷하면 口唇을 營養하지 못하고 髭鬚이 자라지 못하며, 下肢로 脈氣가 충분히 내려와 주지 못하면 厥寒하게 된다.

參 考 文 獻

1. 崔容泰 :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pp.45-47, 111-117, 1991.
2. 林鐘國 : 鍼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pp138-147, 1986.
3. 方圭相·陸泰翰 : 衝脈,任脈,督脈 一源三岐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第16卷 第1號, pp.191-203,1999.
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1,145,166,207,209, 1985.
5.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74,189,267,282,283,1985.

6. 崔昇勳 :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p.160, 1998.
7. 福州市人民醫院 : 脈經校釋, 서울, 一中社, p.87,92, 1992.
8. 山東中醫學院 :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9,pp.255-256, 259-260, 1979.
9. 趙佶 編 : 聖濟總錄, 서울, 醫聖堂, pp.3183-3184, 1993.
10. 黃龍祥 :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pp.480-481, 1997.
11. 鄧良月 編 : 中國鍼灸經絡通鑿, 北京, 青島出版社, p.770,771,pp.774-775,776-777,p.780, 1996.
12. 鄭魁山 編 : 鍼灸集錦, 서울, 醫聖堂, p.198, 1994.
13. 楊繼洲 :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pp.364-366, 1990.
14. 陳廷銓 : 羅遺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15, 1984.
15. 吳謙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pp.547-552, 1983.
16. 樓英 :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9,91. 1996.
17. 孫震察, 高立山 : 鍼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15, 1985.
18. 李 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313, 1990.
19. 王羅珍, 李鼎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38, 1990.
20. 王雪苔 : 中國鍼灸大全(上),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p.87, 1988.
21. 上海中醫學院 : 鍼灸學, 香港, 商務印書館, pp.189-190, 1982.
22. 張介賓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p.202,262, 373,385, 1990.
23.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pp.115-116,p.383, 1986.
24. 金賢濟 外 : 最新鍼灸學, 서울, 成輔社, pp.80-81,88-89, 1983.